



젊은 어머니들

정병모/(재)봉신장학회 감사

요즘의 젊은 어머니들은 무척 분주하다. 임신해서 10개월 동안의 몸속 보육, 출산 그리고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가정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이다

갓난아이때부터 카드 등으로 한글을 읽게 하고, 숫자를 익히며, 영어의 알파벳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물(事物)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다운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이나마 알게 해주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계절의 전령사인 귀뚜라미가 거실 구석에서 팔딱거릴 때, 자지러질듯 놀라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면 의연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LA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교포 여대생은 '교실에서 뱀을 기르며 그것을 관찰하도록 한 유대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한다.

지금도 뱀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되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나무나 과일, 꽃이나 곤충, 그리고 동물 등을 보게 하고 만져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가족들과 살결을 비비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은 접촉을 통해 자신감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인제대의 남민교수는 '유아기에는 오감에 의한 다양한 접촉으로 두뇌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접촉에 굶주리면 두뇌에 손상을 입는다

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인성 교육을 강조하던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종래 시간에 사람 인(人)자 다섯 글자를 나란히 써놓고서는 학생들에게 말을 이어보라고 했다.

학생들의 말을 듣고 난 선생님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참된 사람이지'하고 강조했다. 이 얘기는 다시 듣고 싶은 훈화이다. 아이들이 사물을 이해하면서 사람다운 모습을 형성하는 것은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검소하면서도 적극적인, 품격을 살리는 생활에서이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 못지 않게 강하다. 그것은 개척기 때부터의 역사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전장으로 나간 아버지를 대신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며, 곡식을 심어 가꾸었고, 가족을 길렀다. 또한 인디언들이 몰려오면 총을 들고 맞싸우면서 가족들을 보호하며 가정을 지켰던 것이다.

일본의 상사원, 특파원 등의 가족인 젊은 어머니들은 서울 한강변의 호화롭지 않은 아파트에 모여 산다. 그들은 애들을 업거나 자전거에 태우고 시장에 가며 그 자전거로 등하고 시킨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젊은 어머니들도 당당하다. 어떤 놀림과 시련 속에서도 가정의 한 가운데에서 가족들을 지킨다. 더욱이 총명 예지하고 진취적이어서 자녀를 정(情)으로만 기르려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은 지금의 젊은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머니인 미혼 여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임일 것이다.

